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제173호

2007년 1월

<http://assem.cb21.net>

충청북도 의회 소식



150만 충북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발행인 충청북도의회위원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전화 (043)220-5123/ (월간)

고향의 얼굴

지난 해 쓸모없는 깃털
하나 둘 뺏으면서
이글거리는 아침 그리며
찬란한 먼동 거느리고
다시 날개 돌아
눈 들어 하늘을 보라

어차피 저문다 해도
바람 하나 버리지 못할
대견한 사람으로
얼룩진 울타리 고치며
숫구쳐 용들임 치는
까치놀 기운 가득하리라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더러운 곳 말끔히 쓸어내어
보람 영그는 물고 열어 제쳐
우짚는 생명 장엄한 핏줄
지팡이도 되고 채찍도 되면서
마을의 등불 고향의 얼굴 되리라

2007년 새 해 첫 날
경제특별도 충북 햇빛의 터전
소명 젖은 뜨거운 가슴 열어
도도히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신념의 불꽃 역사의 촛불되어
힘차고 보람차게 깃발 날리자

-시인 김 호 동-

■ 사 진 : 충북 보은 수리티재 일출 - 노병찬 作
(<http://www.chan50.pe.kr>)

[필자약력]

- 충북문인협회장 역임
- 한국유네스코 충북 명예회장
- 충북 문화상 수상외 다수
- 시집 '무심에 살으리' 외 다수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생산적인 의정활동 실천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청북도의 번영과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제8대 충청북도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의 비전을 내걸고, 이를 위하여,

첫째,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적 정을 실현하고,

둘째,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며,

셋째, 활력있고 신뢰받는 제8대의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금년은 지난해 제8대 도의회의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그간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더욱 연구

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충청북도의 번영과 발전에 궤를 함께하면서, 지역경제의 현안인 하이닉스 공장 증설의 청주 유치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도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개혁과제 등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역차원에서 이와 같은 국가적 대사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충북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정활동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생산적 의정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민생현장에서의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정진단과 대안제시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민의 뜻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주민생활현장 방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원·진정, 도민발언대 등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연찬회를 개최하고 우수모니터에 대하여는 그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원의 전문성·의정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면서 도정정책 수행과정에서의 의원 참여를 확대하고 도정 및 지역현안 토론회·공청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자치임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화합의정 구현 및 의정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정활동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사무처 공무원과의 교감확대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협의를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의정주요사항이나 도정현안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언론 및 각종 간행물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으로서의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데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충북이 '국토와 국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현안문제 해결에 도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는 등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애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고, 충북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IT·BT산업 위주의 투자유치 사업을 지원하고 또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서비스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보존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문자에게는 책처럼 볼 수 있는 e-의정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의정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충청북도의회는 약속드린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도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충북도의회가 1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장 오 장 세



경제특별도 건설 · 지역균형발전에 도정의 모든 역량 결집



정 우 택 도지사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1만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丁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보람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도민여러분의 전폭적인지지 속에 민선 4기 도정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성원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은 어느 때 보다도 좋은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모두가 잘사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올해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있는 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최적의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권역

별 성장 거점단지와 연계한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장설립절차 등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기업민원을 One-Stop 서비스로 지원하고, 기업 애로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겠으며, 노사평화지대의 기를 마련을 위한 생산직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와 함께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첨단산업의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산업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을 지원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공항으로 육성, 중앙선·태백선의 복선전철화와 중부내륙철도를 건설, 청주~천안, 청주~대전간 경전철 건설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원~상주, 안중~삼척간 등 4개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57개소의 국도와 지방도를 확·포장하고,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음성 제천유류단지 조성 등 물류유통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종합

연구수단, 기업도시의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신활력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낙후지역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잘 팔리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장비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해외특수시장을 공략하겠으며, 우수농산물 도지사 품질보증 추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복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민종합복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 장려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대비하는 한편, 재가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참여하는 문화를 창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

하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독창적인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관광마케팅과 함께 만가문 유엔사무총장 고향으로서의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충북체육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과 연계하여 스포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 전자지방정부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정부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지역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우리만의 전략'으로 경제특별도를 건설해 나가십시오. 우리 모두 2007년을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년으로 설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

“힘찬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 실천을 위하여...



이 기 용 교육감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1만 7천여 교육가족 여러분!

은 누리에 쏟아지는 여명의 햇살을 받으며,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감사와 다짐으로 맞이하는 새 아침에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교육가족 모두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정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7회 연속 우수교육청, 혁신·복지정책의 선도적 수행 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토록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열정을 쏟아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도의원들과 교육위원회, 그리고 학부모님과 도민 여러분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역사의 장으로 기록될 지난 해의 알찬 결실과 교육가족의 응집력이 2007년도에는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폭발적 시너지로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26만여 학생들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가치를 내걸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충북교육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한 학력, 창조, 품성, 참여, 복지 등 5대 시책을 구체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조화로운 학력 신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관리, 좋은 수업의 확산과 장학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국가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대비 창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신 직업사회에 부

응하는 직업교육, 정보화 교육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조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진취적인 품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율과 봉사, 협력과 경쟁, 자아존중과 배려 등을 실천하는 예의 바르고 진취적인 건강인을 육성하는 일 이야말로 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최적화된 생활에 질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절과 질서, 친절과 봉사의 기본생활 습관정착과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참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가 신나고 행복한 삶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을 중심점으로 하여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있는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환경이야말로 창의적인 교실수업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의 정서를 풍성하게 하는 교육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취약계층의 교육복지 증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금년도에 설계한 모든 교육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활기차게 실현되어 꿈과 희망을 키워 가는 감동교육이 새해 서광처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결실을 도약의 초석으로 삼아 다시 한번 조용한 전진 속에서,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확실한 성장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학교에 창외의 슬기가 넘쳐나고, 사랑으로 꽃 피는 아름다운 감동과 향기가 넘치는 행복한 교육세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해년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衷心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이 기 용

제2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2006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지어

충청북도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제255회 정례회를 열고 2007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대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와 행보도시에 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는 중국 흑룡강성 정부대표단 접견, 각 상임위원회 연찬 및 간담회 실시 등 비회기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11월 20일부터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받고 간담회와 현지확인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다.

12월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수정가결)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제255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성명서·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12월 15일 실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충청북도가 제출한 일반회계 2조 2,557억 1,906만 9천 원 중 114억 3,020만 원을 삼각하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1조 2,573억 2,384만 6천 원 중 13억

6,89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개회마지막날인 22일에는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200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5분 자유발언

경제특별도 건설 위해 도민역량 결집



심흥섭 의원

(교육사회·충주 제2)

민선4기에 들어선 충북이 정우택지사를 선두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부지사도 경제특별도를 외치며 전국을 돌고 세계의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바로 충북

을 경제특별도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지사가 앞장서고, 도청은 물론 충북의 모든 시·군이 뛰고, 도 의회는 물론 각 시·군 의회가 반쳐주어야 하고, 충북 도민 전체가 지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질 때 비로소 충북에 경제특별도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도민이 하나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 발전하였고, 부산은 해양특별자치시로 만들겠다고 법률안의 제출에 나섰다.

이제 충북도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충북 전 도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충북 경제특별도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충북학사 환경개선 촉구



이언구 의원

(건설문화·충주 제1)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학사는 건물 노후와 시설협소, 정원조과 등 관리 운영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딸들은 두 명이 사용해도 비좁은 작은방에 3개의 침대를 놓고 기어 들어갔다 기어 나오고 있으며, 비좁은 통로에는 빨래 건조대가 즐비하고 벽체의 도색은 보기 흉할 정도로 곳곳이 얼룩졌는가 하면 세면장과 화장실은 20명이 사용하면 적정한 곳을 무려 60명이 사용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러한 열악한 시설임에도 신청자의 1/3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충북학사 부지에는 약 6백여평의 여유 공간이 있으므로 불과 50여억원만 투자하면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미래의 주인, 내일의 충북인들을 더 알뜰하게, 더 훌륭하게 길러낼 수 있리라 확신한다.

도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도민 모금운동이라도 전개해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딸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속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사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조속한 제천연수타운 추진을



민경환 의원

(산업경제·제천 제2)

2005년 6월 24일 12개 공공기관이 충청북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14만 제천시민들은 사활을 거는 비장한 노력이 있었다.

또한, 충청북도가 사활을 걸었던 오송 분기역 유치 및 충주의 기업도시 선정에도 제

천 시민은 모든 힘을 기울였다.

제천 시민은 제천연수타운이라는 충청북도의 개별이전을 수용하고 유치 약속이 이행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이전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개별이전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은 부결되었고,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실시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 중 제천연수타운에 관한 연구 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는 정리 추경을 상정함으로써 제천연수타운 건설에 관한 도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혁신도시 개별 이전에 대하여 불성실하다면 충청북도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부당한 결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충청북도의 이러한 모습은 제천시민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줄 것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간 중 11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개정 등을 위한 12월 7일 본회의의 일정을 추가하는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7년도 예산안과 연간회기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할 것 등 4건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 인원을 증원해 줄 것 등 7건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200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당초예산 59억5천4백만원, 수정예산 1천2백만원 등 총 59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56억2천6백만원보다 6.0%인 3억4천만원의 증액계상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 중 의원국내여비 2천만원을 삭감한 59억4천6

백만원을 의결하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7년도 회기는 임시회 7회 75일과 정례회 2회 45일로 연간 120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12월 1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제256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으며 11월 30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충청북도 조직개편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며, 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책임감 고취 및 의정활동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심사



▶ 간담회

12월 15일 제3차 회의에 앞서 제2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 조례안 심사

12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 행정사무감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부서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열린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행정기구 설치 조

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관리실을 포함한 도 본청 2실국 2관, 출자기관 충청북도개발공사, 출연법인 충청

북도개발연구원 등에 대하여 161건의 감사요구 자료준비와 분석 검토를 통하여 언론 보도분석 기법의 체계화 및 활용도 제고, 도민감사관 위촉 시 자질검증 시스템 마련, 시·군간 갈등 분쟁 등에 대한 도 조정역할의 확대 방안 강구 등 모두 43건에 대해 시정 촉구를 하였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의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연구원들의 혁신을 주문하고, 충청북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정책추진과 청주시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였다.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비효율적이고 과다계상된 U-충북정보화구축 50백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200백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10백만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920백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다.

12월 1일과 12월 14일에는 의원발의 1건, 충청북도지사 제출 4건 등 총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탑재와 성과관리시스템(BSC) 도입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조직 혁신의 성공을 위한 조직구성원들의 마인드 변화를 위한 대책, 의정보좌기능의 강화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또한 충청북도 재정운용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이필용위원에 의한 충청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해석 오해 소지가 있는 조문삭제 및 금고의 약정기간(4년 2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다.

그밖에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반영과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용)는 2006년 11월 20일~12월 22일까지 열린 제255회 정례회기 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조례안 5건을 심사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북도청 소관 복지환경국, 여성정책담당관실,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과 교육청 소관 본청, 제천시교육청, 단양군교육청 및 청주·충주의료원의 현안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들의 원활한 학교·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줄 것 등 모두 82건에 대해 시정·촉구 또는 건의하였다.

1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2007년

도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사전계획성 부족과 사업추진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1회용 컵줄이기 홍보물품 제작사업비 8,100천원의 9개사업 등 충청북도지사 소관 386,100천원, 충청북도교육청소관 좋은 학교 전통세우기 사업비 22,280천원 외 15개 사업 1,357,150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다.

12월 14일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속발전가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요징수조례 일부 부가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요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그 외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



현지확인

11월 23일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중 약품창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예산안 심사 ▶

12월 4일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노인복지시설 방문



현지확인

11월 24일 축사환경개선사업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

11월 21일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윤숙)는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였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감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평소 의정활동시 도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통상국 감사에서는 청주·충주 도시가스 기본요금의 타 시·도에 비하여 현격하게 비싼 사유,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집중 호우시 특례 보증금수 및 신용보증의 건수가 적은 것과 도산하 재단 통합에 지식산업진흥원을 포함하여 통합하지 않은 사유를, 농정국 감사에서는 부부세라 감면된 소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2007년부터 감소하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지원 대책과 주요 사업현장으로 괴산 바이오써감자 생산시설 및 축사환경시설개선 사업장

인 충주시 주덕면의 농가를 방문 주요 시설물을 현지 확인하였다.

현지 방문에서 씨감자 사업이 괴산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기술원 감사에서는 답 라이스 생산량 및 판매현황, 답 라이스가 일반미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과 고품질 사과 수형개선 사업은 이미 농가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를 집중 질의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할 시 각 시·군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상지를 선정할 것을 지적하였다.

12월 4일부터 실시한 2007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안배와 새로운 시책사업은 선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12월 22일에는 보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인우원과 보은의 집을 방문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

철저한 성곽 보수관리 및 충북학사 환경개선 촉구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제 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2006년도 제3회 추경심사, 현지 확인 등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건의(시정 22, 촉구건의 32)지적사항을 도출하였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는 삼년산성 등 성곽보수의 원형 훼손 실태와 충북학사의 열악한 환경개선 대책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남일-문의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과 충주·대청댐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의 현실화에 대하여, 소방본부소관으로는 대형화재의 위험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강화와 응급구조 및 소방장비 확보 등에 대하여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으로는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에 대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

을 주문하고, (재)충북학사와 문화재원 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도 예산안 중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지역별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옛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 5억원 등 총 48건에 86억 7천 760만원을 삭감하였다.

상정된 조례안중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현실 운영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다.

아울러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강력히 호소하는 건의안을 채택함은 물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우리도의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수해복구현장, 민원 불편이 접수된 도로건설 현장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지확인 ▶

11월 28일 남일~문의간 도로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 현지확인

11월 28일 보은 삼년산성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보수현황 등을 청취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북도 및 교육청 2007년도 예산안 심사



◀ 간담회

12월 13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

12월 20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주식)는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중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다.

2007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비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조 2,557억 1,906만 9천원 중 사업추진시기, 실효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95개사업 114억 3,0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1조 2,573억 2,384만 6천원중 13

억 6,89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2006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조 3,556억 6,773만 4천원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3개사업 19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 15억원을 제외한 4억 6,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1조 2,393억 4,833만 5천원을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흥섭 부의장
(교육사회·총무 제2)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병술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확인 등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 소중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제7대의회가 마무리되고 제8대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출발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항상 고뇌하는 모습

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깃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쓴소리와 채찍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 또한 도민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더욱 더 도민 여러분의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겠습니다.

이중호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제천 제1)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시작 되었고 5.31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고 유능한 제8대 도의회가 구성되어 나름대로 각오를 다지고 잘사는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을 펼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완벽하게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도민 모두 잘 사는 충북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회 등 연수기관을 통한 의원 연수를 확대하여 전문성 강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들의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과 견제 감시의 기능을 통해 도민의 뜻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다져진 지방자치의 반석위에 도민의 희망을 세우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분야에 행복과 만족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기동 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음성 제1)

꿈과 희망을 여는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행운이 충만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 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도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학교급식, 무릎꿇은 여고사 사건등과 같은 아쉬움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더욱 연구·노력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복지분야가 안정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외시 당하고 있는 저

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하여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능동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민 여러분의 당근과 채찍에 귀를 기울여 의정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서민의 생활경제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조영재 부의장
(행정자치·영동 제2)



도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병술년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제4회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개원,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선출, 도박공화국 바다이야기 파문, 전시장통제권 환수 논란, 한미 FTA 협상, 북한 핵실험 강행,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서민을 올리는 부동산 광풍 등 많은 어려움과 보람이 함께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희망찬 기대로 시작하는 2007년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융성하며 사회가

화합하는 선진 복지건설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변화와 개혁」의 심도있는 추진은 물론 수도권 규제 완화의 대응 전략과 한미FTA 협상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폭넓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함께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된 자치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필용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음성 제2)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활기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에 아낌 없는 서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을 도정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첫째,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해 냉정하고 엄격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동시에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민을 위한 각종 의안발굴 및 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정보니터 및 시민단체 등과 도정 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자치의정을 구현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실속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숙 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청주 제5)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는 유망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으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하는 대수도로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및 한미 FTA 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농정현안 토론회, 쌀 산업 보호 대

책 마련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며, 도민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충북경제를
신진 반열에 올리겠습니다.**

송은섭 건설문화위원장
(건설문화·진천 제2)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가슴 부푼 희망을 안고 정해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 해'인 정해년의 상서로운 기운은 분명, 도민 여러분의 가슴을 환희 비추어 줄 것입니다.

금년 한해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재운과 화목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도 출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도민의

손에 의해 경제특별도 육성과 균형발전의 민선 4기가 출범하는 등 빛나는 충북의 시대가 태동한 한 해였다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역시 지난 해의 영광에 이어 경제특별도 건설의 환한 빛이 발산하고 자랑스러운 충북인의 저력이 대외 만방으로 드높아짐은 물론 민생의 안정 속에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해년 새해 역시 도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북의 새역사 창조와 대 발전을 위해 함께 발로 뛰어 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재정운용 환경과 제도에 걸맞게
책임과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장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육사회·진천 제1)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제8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우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쾌거를 이루기도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충북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혁신도시, 바이오농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좋은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는 호기를 최대한 살려 충북이 지리적인 국도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국가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변화하는 지방재정운용환경과 제도에 걸맞게 인식을 새롭게 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태원 의원
(행정자치·비례대표)

정해년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쾌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자치는 “뜨거운 가슴으로 여과하지 않은 냉철한 머리한 소용이 없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늘 주민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현장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의정활동을 견지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새롭고 신선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동 의원
(행정자치·괴산 제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적극적 대응 능력 제고와 쌀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박재국 의원
(행정자치·청주 제4)

정해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할 때 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어려운 자리라 생각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간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할 통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는 지혜로운 의정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연한수 의원
(행정자치·증평 제2)

희망찬 2007년, 정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애정어린 성원과 염려 덕분에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마쳤습니다. “일년의 계획은 원단에 있다”고 하듯이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랑받는 의원으로서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명웅 의원
(교육사회·옥천 제2)

정해년 새해에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해는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충북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특히 충주댐·대청댐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받고 있는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도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운 의원
(교육사회·단양 제2)

새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회의 그늘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과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청정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도민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임 현 의원
(교육사회·영동 제1)

희망찬 정해년 새해 도민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도민의 성원으로 제8대 도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 30년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손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광옥 의원
(교육사회·비례대표)

정해년 새해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농촌 결혼 이민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든 도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조성에 의정활동을 전력하고자 합니다. 정해년 새해도 도민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도의원을 거듭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미애 의원
(교육사회·비례대표)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충청북도의회에 입성해 여성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경환 의원
(산업경제·제천 제2)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한 해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도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정활동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하고 정진하여 항상 노력하는 의원, 도민과 함께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한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
(산업경제·청주 제6)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개혁, 각종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기업하기 좋은 충북 건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있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행정자치·괴산 제1)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이 수입 농산물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확충하고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연구·노력하여 도민의 지지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완 의원
(산업경제·옥천 제1)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한 해 도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옥천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북, 기업인이 대우받는 충북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원 의원
(산업경제·청주 제2)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도민과 친숙한 의원,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알차고 활기찬 새해 설계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산업경제·보은 제2)

도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 농산업단지가 선정되도록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도민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활력있는 한 해되시길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
(건설문화·충주 제1)

도민 여러분! 정해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하루하루 생활하기 힘들어 쓰러지는 사람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 마음을 갖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함께 있어 행복한 온정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자원봉사자의 마음으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김범기 의원
(건설문화·청주 제3)

정해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도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항상 '처음과 같이'라는 신조어에 2006년 한해를 바쁘게 뛰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도민여러분들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2007년에도 심기일전하여 도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600년 만에 돌아온 정해년 '황금돼지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건설문화·보은 제1)

정해년 새해 도민 여러분께서 소망하는 모든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새날,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모두의 이상을 착실히 구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도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면 극복하듯 저 역시 한마음 되어 앞장서서 도민께서 필요로 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건설문화·단양 제1)

금돼지가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정해년을 맞아 150만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경제특별도를 지향하고 작지만 강한 축복을 만들기 위해 발맞춘 동반자로 때로는 견제와 감시로 잘사는 충북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충북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튼실한 주춧돌이 되고, 도민의 대변자가 되리라는 당초의 각오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오용식 의원
(건설문화·괴산 제2)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 도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해의 아픔은 과거로 정리하고 금년 새해의 정해년 복돼지를 집안으로 맞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마음으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해년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최재욱 의원
(건설문화·증평 제1)

정해년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의 아픔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의 약속을 세심하게 실천하고 도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창동 의원
(건설문화·청원 제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도민 여러분 성원으로 8대 의회가 개원되었고 경제특별도라는 새로운 도정을 향해 도민과 함께 승설 틈조차 없이 앞만 보고 달려 온 것 같습니다.

또한 도민 전체가 하나되어 알차게 마무리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정해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충북도의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충청권 3개시·도의회 의장은 참여정부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육성정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명제로써 지방의 발전과 성장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중앙정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작금의 중앙정부의 태도는 지방균형발전을 바라는 500만 충청권 주민과 지방정부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간절한 여망을 수포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실의와 절망을 더 이상 꺾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대한 신도시건설과 공경중설 허용등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책을 발표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의 회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집중투자를 서두르고 있어 충청지역 홀대에 따른 위화감을 야기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성의 실추는 대단히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장항·군산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국가계획으로 지정되어 지난 17년동안 여러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역대 정부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약속하였으나, 인근 군산단지는 완공단계에 이르러 이미 절반이상의 공장용지가 분양되는 진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장항단지는 아직까지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충청도민의 분노와 좌절감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충청권 3개시·도의회 의장단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충청권개발 소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시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1. 정부는 군산지구와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즉각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논의를 즉시 중지하고 비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라.

1. 정부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공장 증설은 용인할 수 없으며, "先지방육성, 後수도권관리"라는 참여정부의 당초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편향된 기준적용과 평가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국비지원 배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전지하철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다.

1.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소외된 충청권개발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재정적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의장은 (가칭)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500만 충청도민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6년 12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장 오장세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문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영관

『행복도시에 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님!

참여정부에서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산업발전을 통해 세계 5대 의료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적 대업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 제약·의료·병원 등의 집적과 연구·서비스 간 연계성, 의료산업의 근접성을 극대화 하는 것과 재활치료와 산업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시설, 주거 및 휴양시설, 금융 및 교육시설까지 연계된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우

리나라 최초로 BT산업단지와 IT산업단지를 오송과 오창에 나란히 유치시킴으로써 대한민국 BT·IT의 중심벨트로 물류 중핵 기능지역으로 부상하였고, 또한 지식기반형 산업단지조성 등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집적규모화와 BT·IT가 결합된 보건의료 클러스터를 조성 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오송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유일한 국가생명과학 단지를 조성 하고 있으며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대 국

책기관의 오송 이전 등으로 보건의료산업 견인역할수행과,

셋째, 오창 IT·오송 BT주변 전문병원을 연결하는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넷째, 국토의 X축 철도망의 중심인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내 접근이 가능 하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사 중인 오송 단지 와 연계한 의료·복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송지역은 BT·IT·NT의 융합기술을 집적시키고, R&D 성과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재·기술·산업이 풍부한 주변여건과 무한한 성장잠재력으로 정부에서 추

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최적지입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국토 및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천혜의 조건을 갖춘 오송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여 글로벌 첨단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고 세계5대 의료산업 강국 진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2월 22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도의회사무처 인사이동



1월 1일자로 우병수 전충주부시장이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우처장은 1981년 사무관으로 임관하여 공보관, 음성부군수, 자치연수원장, 문화관광장, 농정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으며 사무처장으로 임명 전까지 충주부시장으로 근무하였다.



한철환 전 사무처장은 2006년 12월 28일자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1월 8일자로 도 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 전 처장은 1967년에 공직에 투신하여 39년동안 요직을 두루 거치며 도정과 의정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이사관으로 명예퇴임 하였다.

〈의회사무처 간부이동〉

총무담당관 → 강호동 (지방서기관)
의사담당관 → 박정희 (지방서기관)
의회운영전문위원 → 윤기판 (지방서기관)
교육사회전문위원 → 이명우 (지방서기관)



의원동정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12월 19일 영동소방서 청사 기공식에 참석, 당면 현안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12월 28일 단양군 영춘면 별방소방과출소 소방차고지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12월 20일 도청 대회 의실에서 개최된 바이오농업대상 시상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최재욱 의원
(증평 제1선거구)

12월 21일 증평군 새마을회 평가대회에 참석, 새마을활동 보고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12월 21일 제천시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 참석



◀ 심홍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12월 23일 충주시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를 주관하고 유공자 시상 및 관계자 격려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12월 25일 제천시 새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새마을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12월 18일 청원군민회관에서 실시된 여성단체 한마음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환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12월 14일 괴산군 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개관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12월 16일 옥천군 청산면에서 개최된 유래비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12월 8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에 신입회원 교육 및 격려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12월 25일 배틀가든에서 실시된 보은군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 체육인 격려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12월 8일 노인복지에 대한 공로로 뉴스웨이가 주재한 제3회 <장한 한국인상> 수상



◀ 최광욱 의원
(비례대표)

12월 7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어학교 종강식에 참석하여 격려사 및 관계자 격려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12월 14일 청원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12월 15일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말뚝이 세상뚝이 22〉

파랑새와 행복 찾기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희구한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 모두 행복을 원한다.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 만큼, 각자의 처지에서 찾고자하는 행복도 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행복에는 정형(定型)이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고, 행복을 찾거나 행복을 누리는데도 왕도는 없다.

‘생활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것이 행복의 사전적 풀이다. 느낀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며 시각적 감지가 불가능한, 형상(形象)으로 나타나기 이전(形而上學)의 정신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이 마치 금은보석과 같은 패물처럼 혹은 호화로운 의상이나 거대한 저택, 만인을 복종시키는 권력처럼 손에 쥐려하고 몸에 간직하려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현재와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허황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있는 것이다.

벨기에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마아텔링크(Maeterlink, 1862~1946)가

1909년에 발표한 아동극 ‘파랑새’는 이러한 인간들의 허황된 행복 찾기를 깨우쳐주기 위한 일종의 우화극(寓話劇)이다.

극의 내용은 가난한 나무꾼의 자식인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똑같이 꾸는 꿈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소년은 천사의 부탁을 받고, 병든 누이를 위해서 행복의 새인 파랑새를 찾으러 나선다. 천사가 빌려준 마술모자의 힘을 빌려, ‘추억의 나라’, ‘밤의 나라’, ‘사자(死者)의 나라’, ‘미래의 나라’ 등을 헤매면서 갖가지 모험을 겪지만, 파랑새는 찾지 못한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토록 꿈속에서 찾고 있던 파랑새가 바로 자기 집 새장 속에 있더라는 얘기가.

이 우화극 속의 파랑새는 사람들 누구나 잡고 싶어 하는 행복을 상징하고 있다. 두 소년이 꿈속에서 겪은 갖가지 모험들도, 먼 데서 행복을 찾으려는 못사람들의 허황된 노력을 비유적으로 설정한 상징적인 사건들이다.

결국, 인간은 행복을 먼 데서 찾으려고 헤매지만 실은 우리 주변, 바로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다.

파랑새(Blue bird)는 원래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개똥지빠귀로 불리는 새지만, 유럽에서는 옛날이야기에 속에 행복의 전달자로 등장하는 가상의 새다. 마아텔링크의 작품 속의 파랑새는

물론 옛날이야기 속의 가상 새요 ‘행복’의 상징적 존재다.

유럽에서 행복의 상징으로 불리는 파랑새, 개똥지빠귀는 실제로는 파란색과는 거리가 먼 새다. 노란색 머리에 갈색계통의 깃털을 가진 겨울철새다. 그런데도 유럽의 옛날이야기나 마아텔링크의 작품 속에 ‘파랑새’로 등장하는 것은 인가와 가까운 숲의 관목사이에 동지기를 틀고 살면서 사람들과 자주 접할 수 있다는 친근성 때문일 것이다.

행복도 역시 우리 주변을 날고 있는 새처럼 가까운 곳에 있지만,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다. 국민총생산이 2900달러로 최빈국(最貧國)에 속하는 나라요, 국명도 역시 우리 주변을 날고 있는 행복지수는 놀랍게도 세계 1위란다.

경제적 부를 누리거나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친다면 미국이나 일본,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서구의 몇몇 나라가 선순위를 차지해야 마땅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 10위권 안팎의 경제력을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바누아투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와는 한참 다른 102위란다. (영국 신경제저널, 06.7)

그렇다면, 보릿고개에 허리끈을 졸라매던 60년대 이전에 비해, 호의호식하는 지금은 행복한가? 그 역시 대답은 ‘아니다’ 일 것이다.

그 때 보다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졌지만, 우리들의 욕구가 가진

것 보다 크고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좌우비교나 전후비교, 어느 쪽으로도 ‘지금 행복하다’는 우리들의 체감 온도(지수?)가 방글라데시 국민들 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 먼 곳에서,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얻으려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소소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각자의 욕망과 기대치에 반비례한다. 결국은 욕망을 줄이고 기대치를 낮추는 데서부터 행복은 시작 된다. 기적과 행운을 바라지 않고 내가 땀 흘려 마련한 것으로 만족하고, 현재의 처지를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 아닌가?

2007년은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해다. 운(運)을 믿는 사람들은 돼지띠를 타고난 아이가 복이 많단다. 쌍춘절 턱에 혼사(婚事)가 많았던 2006년에 이어, 돼지띠가 되는 2007년은 다산(多産)의 해가 될 가능성이 많은 해다.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이즘엔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곧 복음(福音)이다. 온 국민이 욕심을 조금씩 줄인다면 새로 태어날 복돼지들이 파랑새가 되고 그들의 고고성(呱呱聲)이 온 국민의 복음이 되지 않을까?

황금돼지해에는 나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자성예언도 파랑새 찾기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안수길 <소설가>